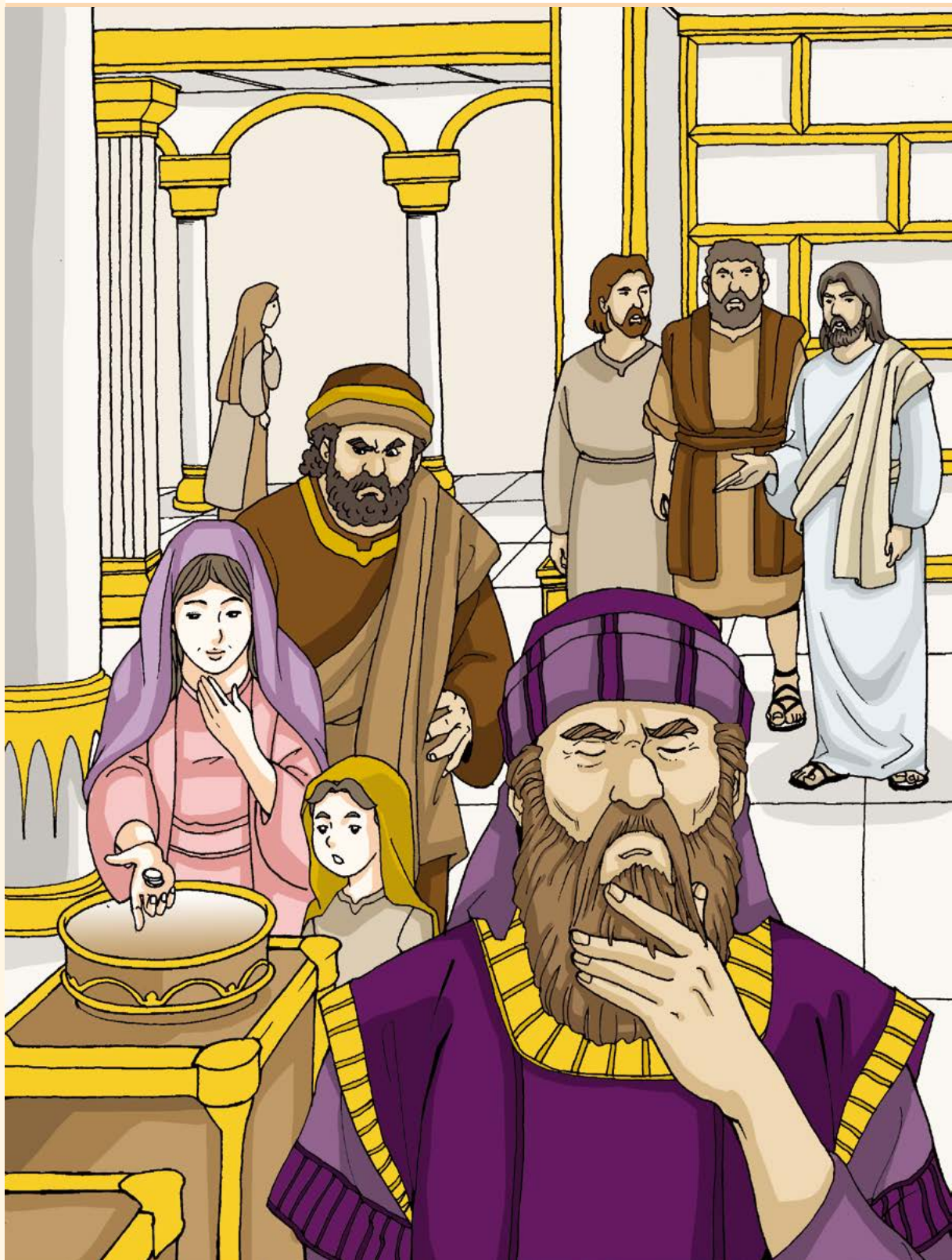


35 과부의 두 렵돈(한금)

마가복음 12:41~44, 누가복음 21:1~4



한 과부도 얼마를
헌금했습니다. 과부
는 가난했기 때문에,
두 렵돈(한 고드란트)
을 넣었을 뿐입니다.

예수님께서 성전 헌금 통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.
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, 한 과부도 얼마를 헌금했습니다.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,
두 ¹⁾렙돈(한 고드란트)을 넣었을 뿐입니다.

지금 시대로 보면 부자들은 십만 원, 이십만 원도 헌금함에 넣었는데, 과부는 500원 동전
두 개를 딸랑 넣었던 것입니다.

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.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
넣었지만,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.”

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 헌금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.
그래서 헌금하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.

¹⁾렙돈: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단위 중 가장 적은 단위.

성 암 송
경

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(고린도후서 12:14)

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. 얻은 것을 ¹⁾십일조와 ²⁾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.

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며 기뻐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

¹⁾십일조: 소득의 십분의 일

²⁾헌물: 드리는 물건



예수님께서는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하셨나요? ()

- ① 부자가 풍족한 중에 헌금한 많은 돈.
- ②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적은 돈.



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하나님께 드릴 것이
이것밖에 없는데, 누가 비웃지
않을까?

이것이 전부인데, 내일은
어떻게 지낼까?



예 화



리빙스턴의 헌금

이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자신을 바쳤던 리빙스턴에 대한 예화입니다.

영국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프리카 사람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, 의료 선교가 몹시 필요했습니다.

헌금 그릇을 돌리는데, 헌금 그릇은 세수대아처럼 둥글고 넓적한 모양의 은접시였습니다. 사람들은 그 헌금 그릇이 오면 그 위에 얼마씩 돈을 냈습니다.

헌금 그릇이 한 아이 앞에 오자, 그 아이는 그 은접시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. 어이가 없어서 누가 물었습니다.

"너 왜 거기에 올라 앉았니?"

"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. 대신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."



부모님 난

선생님 난

Blank box for parent's name.

Blank box for teacher's name.